

numbers 제 23호



주요 내용

2019. 11.20

1. 학벌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2. 평생 직장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국민 커피 관련 인식
3. 넘버즈 칼럼 _ “기독교가 이념 갈등을 해소하려면”(손봉호 교수)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일반 사회 통계(다음세대)

학벌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자녀 교육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위임한 고결한 임무이지만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 또한 만만치 않다. 제도권 교육을 당연시하는 문화에서 부모들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자녀 교육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오늘날 한국은 그렇게 단호하게 결단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사교육에 있어서는 부모의 선택권보다 오히려 다른 학생에게 처진다는 심리적 ‘불안감’이 매우 강하게 작용한다. 모든 부모가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사교육을 끊지 못하는 이유다. 자녀 교육의 문제는 단순히 입시 제도의 변화를 통해 그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한국은 지난 몇달간 ‘계급’과 ‘공정’이라는 담론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소득에 따른 계층의 세습화와 자녀 입시에 따른 ‘공정’의 문제는 젊은 층과 기성 세대 간의 또다른 불화를 양산하기도 했다.

요점은 계층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사회 구조에서 과연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에 **주간리포트 넘버즈 23호에서는 ‘자녀 교육과 대학 입학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고 한국 교회가 주목해야 할 점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특히 제도권 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 서비스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그 빈공간을 메꿀 수 있는지 고민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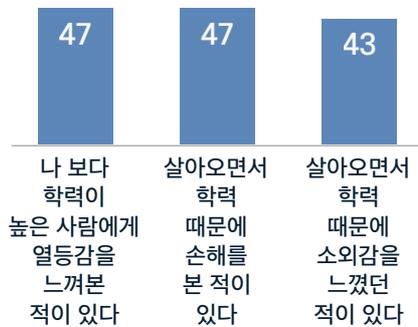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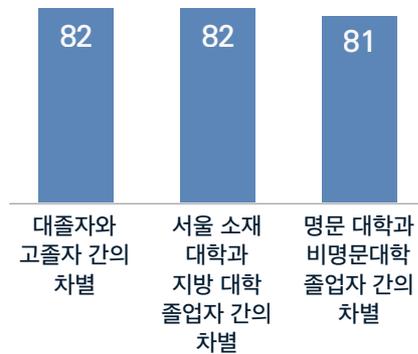
1 국민의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를 느낀 적 있다

-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학력 때문에 열등감, 소외감을 느낀 것으로 조사됨
- 대부분의 국민이 대졸자와 고졸자간의 학력 차별,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 대학 간의 차별, 명문대와 비명문대 간의 차별이 있다고 인식함

[그림] 학력에 대한 인식 ('그렇다' 비율) (%)



[그림] 학력 차별에 대한 인식('심하다' 비율) (%)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대학 및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2019.08.20.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08, 표본오차 ±3.1%)

2 자녀의 명문대학 입학, '집안의 자랑이다', 75%

- 우리 국민은 '명문대학을 졸업해도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68%), 70% 이상은 '명문 대학이 취직, 결혼, 승진,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

[그림] 명문대 진학의 효과에 대한 인식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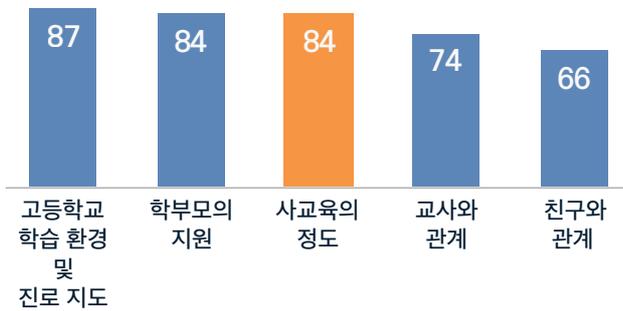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대학 및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2019.08.20.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08, 표본오차 ±3.1%)

3 사교육 ‘대학 입학에 미치는 영향’ 84%

- 우리 국민의 대부분(84%)은 사교육이 대학 입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음
- 한편 대학 입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교 학습 환경’(87%), ‘교사와 관계’(74%), ‘친구와 관계’(66%)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항목별 대학 입학에 미치는 영향(‘영향을 미친다’ 비율) (%)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대학 및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2019.08.20.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08, 표본오차 ±3.1%)

● 사교육, 학습과 진로교육 측면에서 공교육 대비 우수하다고 인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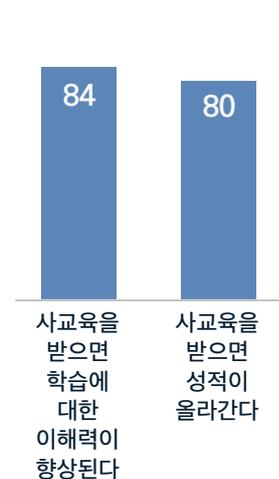
- 8가지 항목에 대해 사교육과 공교육을 비교 평가한 결과, 사교육은 수업 내용/학생 참여도/진로 교육/상담 측면에서 공교육보다 더 우수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대부분의 국민이 사교육을 받으면 ‘학습 이해력 향상’(84%)과 ‘성적 향상’(80%)이 된다고 사교육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표] 공교육 vs 사교육 비교 평가 (%)

	공교육이 더 우수	사교육이 더 우수	어느 한쪽이 우위를 말하기 어렵다
수업시 학생의 참여	20	59	21
수업 내용의 전달 및 이해	14	57	29
진로 교육	28	50	23
학생과 상담	28	45	26
인성 교육	56	15	29
친구와 관계	55	17	29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대학 및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2019.08.20.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08, 표본오차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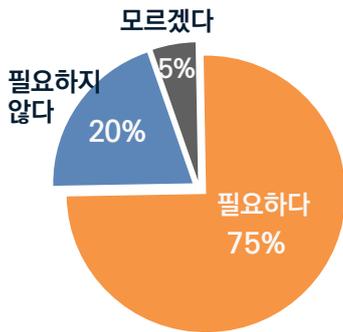
[그림] 사교육 효과(‘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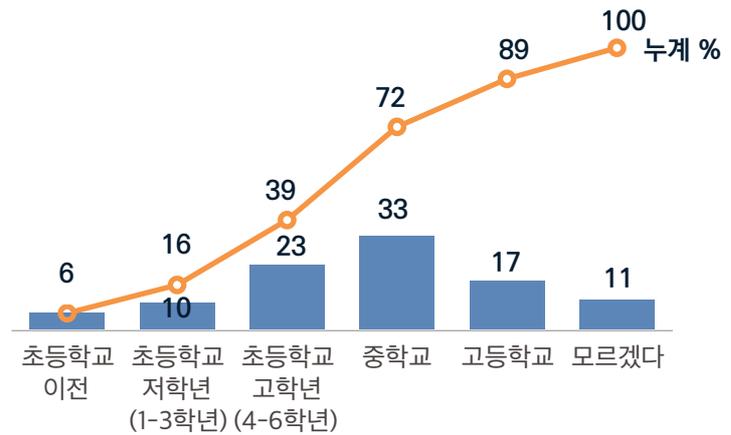
● 사교육, '중학교 또는 그 이전부터 시작하는게 좋다' 72%

- 국민 4명 중 3명 정도(75%)가 대학 진학을 위해 사교육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 대학진학을 위해 사교육이 언제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초등학교 6학년 이전' 39%, '중학교' 33%로 '고등학교' 17%로, 고등학교부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것이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 필요성 (%)



[그림] 대학진학을 위한 사교육 시작 시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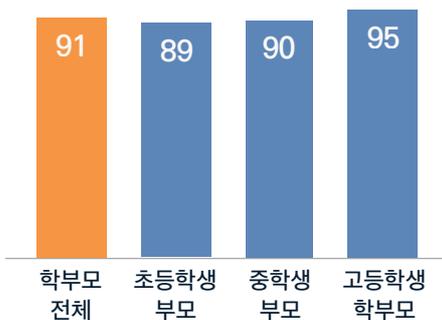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대학 및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2019.08.20.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08, 표본오차 ±3.1%)

● 학부모의 절대다수(91%)가 사교육비에 부담을 갖고 있지만, 사교육 시키는 이유로 '심리적 불안감'이 가장 높음

- 대부분 초중고 학부모는 사교육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부담감은 각 학교급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사교육 시키는 이유로 '심리적 불안감'이 2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남들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 22%,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16% 등의 순으로 조사됨

[그림] 자녀 사교육비 부담 정도 (초등학교 학부모, '부담된다' 비율) (%)



[표] 사교육 시키는 이유(초중고 학부모)

이유	%
남들이 하나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26
남들보다 앞서 나가게 하기 위해	22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해서	16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	13
방과후 집에서 공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9
자녀가 혼자서는 공부를 하지 않아서	8
특기/적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6

*자료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8 교육여론조사', 2018.12.
(전국 만 19~75세 성인 남녀, 2,000명, 온라인 조사, 2018.8~9)

4 월 소득 700만 원 이상 가구와 100만 원 미만 가구의 교육비 무려 17배 차이가 남

- 이처럼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 교육비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 자녀 교육비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살펴 보았음
- 통계청 자료 기준, 가구소득 대비 교육비를 분석해 보면, 월 소득 700만 원 이상 가구는 월 교육비가 453,000원인 반면,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가구는 교육비 26,000원을 지출해 두 그룹 간에 무려 17배나 차이가 나타남
- 가구 지출액 중 교육비 지출액 비중을 보면 월 소득 7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교육비 비중이 9.9%인 반면, 100만 원 미만 가구는 2.4%임. 따라서 저소득층 가구는 기본 생활비 부족으로 교육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월 가구 소득 구간별 월 평균 교육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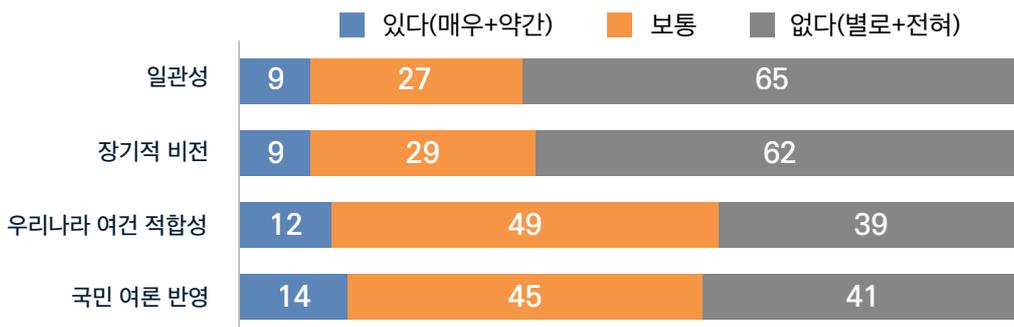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18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결과, 2019.4.25. (전국 연간 12,000가구, 매월 1일 조사, 월 1,000가구)
 ** < >안은 가구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임

5 우리 국민은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매우 낮은 평가를 내림

- 정부 교육 정책의 일관성, 장기적 비전, 우리나라 여건 적합성, 국민 여론 반영 등 4가지 측면에 대해 국민적 평가는 긍정 평가(있다)가 모두 10% 안팎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교육 정책에 대해 국민적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항목별 정부 교육 정책 평가(5점 척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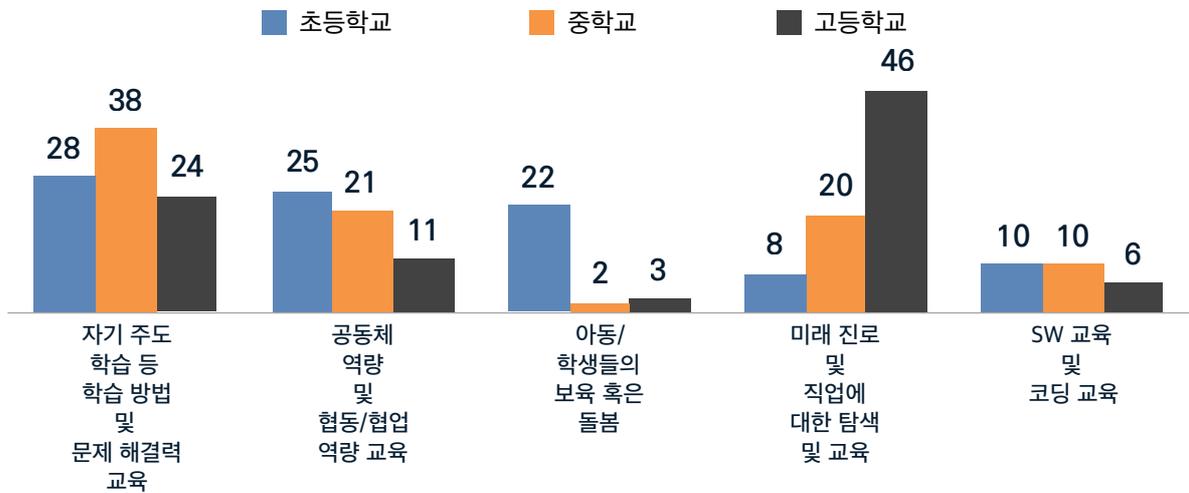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8 교육여론조사', 2018.12.
 (전국 만 19~75세 성인 남녀, 2,000명, 온라인 조사, 2018.8~9)

6 미래학교에서 강조될 역할,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 방법 및 문제 해결력 교육이 1위로 지적됨

- 초중고 각각에 대해 향후 미래 학교에서 더 강조될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초/중학교에서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 방법 및 문제 해결력 교육'이 1위로 응답된 반면, 고등학교는 '미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탐색 및 교육'이 1위로 나타남

[그림] 학교급별 미래학교에서 강조될 역할과 기능 (%)



*자료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8 교육여론조사', 2018.12. (전국 만 19~75세 성인 남녀, 2,000명, 온라인 조사, 2018.8~9)

● 미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줘야 할 역량으로, '창의력'이 가장 높음

- 우리 국민은 미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주어야 할 역량으로 '창의력'을 가장 높게 지적함

[그림] 미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줘야 할 역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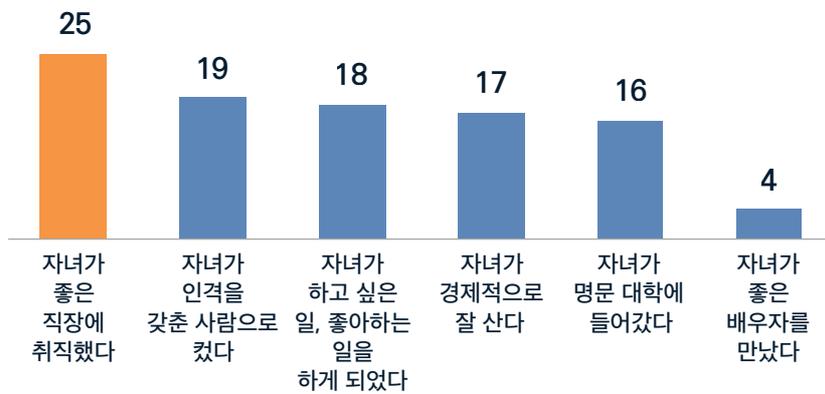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8 교육여론조사', 2018.12. (전국 만 19~75세 성인 남녀, 2,000명, 온라인 조사, 2018.8~9)

7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국민은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것을 1위로 응답함

- 한국은 전 국민이 유별나게 자녀 교육에 매진하는 국가임. 한국인은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질문한 결과, ‘좋은 직장 취직’이라는 응답(25%)이 1위로 나타나, 자녀교육의 목적이 자녀의 출세와 성공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의미 (%)



*자료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8 교육여론조사', 2018.12. (전국 만 19~75세 성인 남녀, 2,000명, 온라인 조사, 2018.8~9)

● 자녀 장래 생활에 대해, 가족/주위 사람과 원만하게 지내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길 바램

- 자녀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자녀 장래생활에 대한 기대를 질문한 결과, ‘경제적으로 윤택’(24%), ‘가족이나 주위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냄’(24%)이 동일하게 높게 나타남

[그림] 자녀 장래생활에 대한 기대 (%)



*자료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8 교육여론조사', 2018.12. (전국 만 19~75세 성인 남녀, 2,000명, 온라인 조사, 2018.8~9)

8 목회적 제언

우리 사회는 학벌 중심 사회이다. 국민 대부분이 대졸자와 고졸자,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대, 명문대와 비명문대의 학력 차별이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인식 하에서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학력으로 인해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껴본 경험이 있다. 이런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은 자녀 교육에 매진한다. 그래서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면 집안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전국민의 75%나 된다(보고서 3p).

자녀 교육은 필연적으로 사교육이 따라온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육은 사교육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2018년 기준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5조 원 정도 된다.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가 40만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다(통계청,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2019.3.11). 국민들은 사교육비가 부담되지만(91%), 남들이 하나까 심리적으로 불안함, 한편으로 자녀를 남들보다 더 앞서나가게 하기 위해 사교육을 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성적 향상과 진로 교육 측면에서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우수하다고 사교육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 변화에 가장 민감한 지출 항목이 교육비이다. 산업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여러 생활비 중에 소득이 줄어들면 교육비부터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소득이 늘면 교육비부터 늘린다. 따라서 중하위권 소득층의 경우 ‘돈이 없어 학원을 못보낸다’는 말이 통계적으로 설득력을 얻는다(산업연구원, ‘가계소득과 서비스 소비지출의 비대칭성에 관한 연구보고서’, 2016.08.15.).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면 될수록 교육적 혜택에 대한 양극화도 더 심화될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 ‘2018년 가계동향조사 결과’ (2019. 04.25.)에 따르면 월소득 700만 원 이상 가구와 100만 원 미만 가구의 교육비가 무려 17배나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 제시했듯이 우리 국민은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는 의미를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것을 1위로 지적했다. ‘인격을 갖춘 사람’, ‘자녀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보다 ‘좋은 직장’을 자녀 성공의 의미로 삼았다. 자녀 교육의 목적이 자녀의 출세와 성공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 장래 생활에 대한 기대를 질문했는데 ‘가족이나 주위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냄’과 ‘경제적 윤택함’이 동일하게 1위로 지적됐다(보고서 8p).

여기서 교회의 역할이 있을 것 같다.

첫째로, 교회 교육은 세상 교육과 다르게 바로 ‘성품 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후에 사회생활 하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경쟁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텐데, 교회 학교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 현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둘째로, 교회 교육을 통해 삶에 다양한 가치관을 심어 주어야 할 것이다. ‘주간리포트15호’에서 언급했듯(우리나라 사람 행복의 조건 ‘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교육 열풍이 부는 것은 결국 사회적 성공, 경제적 풍요에 대한 욕구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는 삶의 목표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과도한 사교육, 교육적 몰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로, 교회 교육을 통해 ‘창의적 사고 역량’을 키워 줄 수 있었으면 한다. 우리 국민은 미래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길러줘야 할 역량으로 ‘창의적 사고 역량’을 1위로 꼽았다(보고서 7p). 이 부분은 기존의 사교육과 공교육이 모두 담당하지 못하는 빈 영역이라 볼 때, 이와 관련 교회학교 교육 과정에서 성경 공부 외에 창의력을 길러주는 특별한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학부모와 학생 모두 관심을 두고 참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1 최근 언론 보도 통계

평생 직장에 관한 인식 변화
우리나라 국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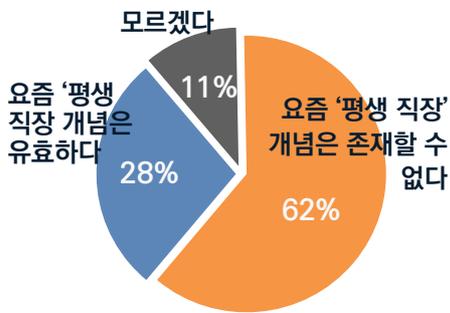
2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평생직장 인식 변화! ‘평생 직장 개념 존재할 수 없다’ 62%

- 우리 국민 5명 3명 이상은 ‘평생 직장의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어 전통적인 평생 직장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 직장인들의 경우,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62%)이 있는데, 한편으로 ‘한 조직에 평생 일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고’(55%), ‘언제든지 나를 최고로 대우해 주는 곳으로 이직하고 싶은 욕구’(69%)가 강한 트렌드를 보인다

[그림] 평생 직장에 대한 의견 (전체 응답자) (%)



[그림] 직장에 대한 인식(직장인 대상)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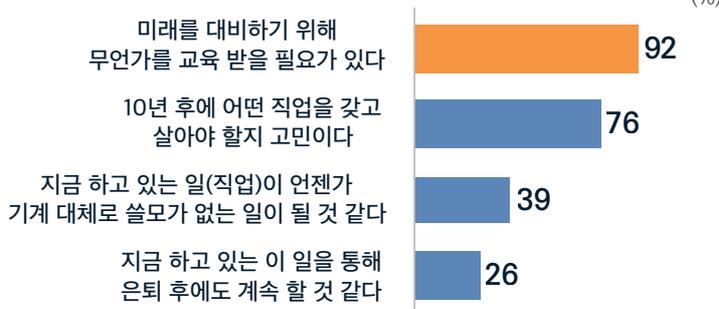


*자료 출처: 트렌드모니터, ‘2019 평생직장 등의 직업관 및 각경제 관련 인식 조사’, 2019. 10.25 (전국 만 1955~2003년생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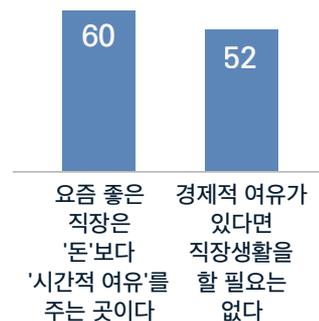
● 직장인 10명 중 4명 가량, 현재 직업이 언젠가 쓸모없는 일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 생각을 갖고 있음

-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92%)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무언가를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직장인들은 ‘좋은 직장은 돈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60%),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직장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52%)고 생각함

[그림] 직업과 미래 인식(직장인 대상) (‘그렇다’ 비율) (%)



[그림] 직장에 대한 인식(직장인 대상) (‘그렇다’ 비율) (%)



*자료 출처: 트렌드모니터, ‘2019 평생직장 등의 직업관 및 각경제 관련 인식 조사’, 2019. 10.25

2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커피 연간 소비량 353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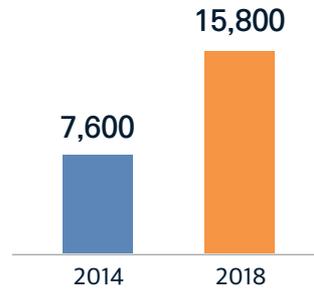
- 우리나라 성인 연간 커피 소비량은 연간 353잔(2018년)으로 세계 평균 소비량 132잔의 약 2.7배 수준임
- 가구 소비 지출 중 커피/차 관련 지출은 2014년 월 7,600원에서 2018년 월 15,800원으로 5년 간 2배 정도 증가함

[그림] 성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 (%)



*note : 1인당 커피 소비량 = 커피 원두 소비량/20세 이상 인구, 10g을 커피 한 잔으로 계산
 **자료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커피산업의 5가지 트렌드 변화와 전망', 2019.07.12

[그림] 커피/차 관련 월 평균 소비 지출액 (원)



*자료 출처 : 금융지주경영연구소, '커피전문점 현황 및 시장여건 분석', 2019.11.06.

● 커피 전문점 방문 시 소비자는 커피 맛을 가장 크게 고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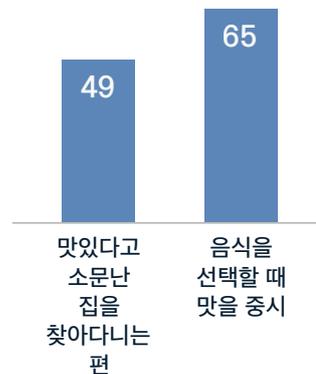
- 커피 전문점 방문 시 고려사항으로 커피의 맛(65%)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접근성(51%), 커피 가격 (49%), 매장 분위기(37%) 등의 순임
- 최근 많은 한국교회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소비자 Needs를 고려, 커피 맛을 더욱 강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커피 전문점 방문 시 고려 사항 (복수 응답, 상위 5위) (%)



*자료 출처 : 마크로밀엠브레인, "커피전문점 이용 및 홈카페 관련 조사", 2017.6.14

[그림] 커피 선호 계층의 식생활 관련 특성 (%)



*자료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년 식품소비행태조사', 2019. 5.17

3 언론 보도 기사 및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김포족](#)

동아일보_2019.11.19.

“김포족 잡아라’... 특급호텔부터 시골농부까지 ‘김치 판매戰’”



[인천지 관련 세계일보 기사](#)

세계일보_2019.11.18

“새로운 성도 10만 명 늘어... 세계적으로 유일”



[한국 경제 경고등](#)

세계일보_2019.11.18

“역대 최악... 역대 최저... 한국 경제 온통 ‘경고등’”



[청소년 혐오 표현 실태](#)

경향신문_2019.11.15

“인권위·교육청, 혐오표현 공동대응 선언...‘청소년 10명 중 7명 혐오표현 경험’”



[택시 면허 응시자 역대 최다](#)

조선일보_2019.11.08

“타다·실업급여가 불붙였다, 택시 면허 열풍”

스토리가 있는 기사



[‘김장, 하십니까\(김장에 대한 여론조사\)’](#)

조선일보_2019.11.16

“‘김장 스트레스’ 52% ... 요즘 시대·처가 흔드는 ‘김장 신경전’”



[BTS 노래가 주는 메시지, 러브 유어 셀프](#)

중앙일보_2019.11.16

“자신을 사랑하고 안아줘라... 셀프 위로 아닌 ‘BTS 만트라’”



[착한 사람 콤플렉스\(어느 신부님의 고백\)](#)

조선일보_2019.11.15

“겸손·청빈? 착하게만 살지마세요, 그러다 병납니다”



[초등학교 교실에 퍼진 ‘혐오’](#)

한겨레신문_2019.11.14.

“휴거, 빌거, 이백충”

Numbers 칼럼

기독교가 이념 갈등을 해소하려면

손봉호 교수

기윤실 자문위원장, 고신대 석좌교수

지금 한국은 좌파와 우파의 극한 대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마치 1945년 해방 직후의 우익 대 좌익의 갈등이 재현되는 것 같다. 이런 대립은 좌파, 우파, 그리고 애꿎은 시민들 모두에게 큰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조선조 말기에 조정이 사분오열되므로 나라를 잃고 서로 싸우던 계파가 모두 속국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도 국력 낭비로 생산성과 국가 경쟁력을 약화하여 결국 우리 모두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말하자면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어리석은 자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모두 모래알 같아서 단결할 줄 모른다”라고 일본인들이 비웃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비아냥거림에 장단을 잘 맞추고 있다.

최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표현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들리기 시작한다. 그런 건실한 시민들의 두려움은 다음 해 총선 때가 되면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겠지만 제대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아 지금 일어나는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런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시민운동 단체들조차 대부분 정치집단으로 변질되어 갈등의 한쪽 편에서 있기 때문에 중재와 화합의 역할은 전혀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때야말로 한국의 고등 종교들이 그 임무를 감당해야 하고, 특히 한국의 최대 종교라는 지위를 얻은 기독교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 기독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이념적이 되고 말았고, 심지어 그 분열의 선봉에 서서 악순환을 부채질하고 있다. 과거 군사정부 때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에 충실했던 보수 교인 상당수가 우파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끄는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처럼 기독교가 이념에 근거한 대규모 정치집회를 주도하는 경우는 세계 역사상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윤리적 실패로 사회의 신임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가 이 위험하고 어리석은 이념 논쟁에까지 끼어들어 상처를 덧내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 교회는 문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이념이란 종교적인 확신으로 변질된 정치적 관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하다. 공산주의와 나치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는지를 생각하면 이념이야말로 현대 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 가운데 하나다. 철학자 포퍼(K. Popper)가 지적한대로 이념은 매우 위험한 “열린사회의 적”이다.

이념 그 자체가 종교적인 확신이 되어 버린 신념인데 그것이 다시 기존 종교의 신앙으로 정당화되고 독단적이 되면 견제를 수 없는 파괴력을 행사할 수 있다. 종교적 순교 정신과 애국 정신이 더해지면 어떤 파괴적 행위라도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 안정과 안전에 엄청난 위협이 될 뿐 아니라, 기독교 자체에도 심각한 상처를 가할 수 있다. 서양 교회가 식민주의에 동조한 것 못지않게 기독교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수 있다. 지금 우파나 좌파에 속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날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신과 타인에게 매우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중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고등 종교 뿐이고, 가르침의 초월성이나 영향력으로 보아 기독교가 그런 역할을 해야만 한다. 한국 기독교는 이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이념을 상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한쪽에 서서 다른 쪽만 고치라고 요구하는 한, 어떤 중재도, 화합도 이룩할 수 없다. 이념을 상대화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이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중재와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좌·우를 초월하면서, 우파가 강조하는 ‘자유’도, 좌파가 추구

Numbers 칼럼

하는 ‘정의’도 다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탐욕으로 가득 찬 우파의 뻔뻔함’과 ‘독선에 취해 있는 좌파의 위선’과는 모두 거리를 두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잘못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성경의 가르침이나 보편적 윤리에 어긋난 잘못은 강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고 하루라도 더 빨리, 근거 없는 거짓 절대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버리고 타인의 권리와 의견도 존중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될수록, 그만큼 더 빨리 우리 사회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크리스천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대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크리스천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가 17 현빌딩 2층 | 대표 지용근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재) CBS | 한용길 사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 김지철 이사장

한국교회탐구센터 | 송인규 소장

(재) 한빛누리 | 김형국 이사장

(주)지앤컴리서치

MOU 기관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후원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후원 교회, 기관, 개인은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후원 계좌: KB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문의: 02-322-0726,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링크 → [클릭 하기](#)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